



고리원전 2호기 운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뉴스

한미 통상팀 협상끝 트럼프 결단이 변수

3500억달러 투자조건 막판 조율
김용범 실장 “일부 진전 있었다”
현금요구 완화설에 기대감 고조
APEC 전 합의땀 정상회담서 발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대표단은 그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수 차례 방문했다. 이후 이달 22일(현지시간) 열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끝으로 실무진 간 대면 협상은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3면〉

관건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의 최종 타결 여부다.

22일 협상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나머지 쟁점을 두고 상대측과 2시간가량 협상을 벌였다. 지난 16일 같은 장소인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같은 인물인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22일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향후 협의는)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같이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실무진 대면 협상의 종료는 양국 정상들의 결단만 남겨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주(10월31~11월1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참석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한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미국시장 내 3500억 달러(503조 원)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한국은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고조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왔고, 실무진 협상이 이어진 상황이다.

앞서 20일 김정관 산업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액 현금 또는 선불 등이 아닐 경우, 납입기한 설정이 쟁점이다. 국내의 일부 매체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문대로라면 트럼프 임기를 훌쩍 넘어선다. 그가 납입기한 늘리기를 용인할지 미지수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전 취재진과 만나 투자기간 확대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이 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미 투자 시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연 150억~200억 달러)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과 미국 측 모두 분석이 있어 이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만약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수도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고농축 제형으로 항체주사 혁신

메트로경제 ‘제약·바이오 포럼’ 새 플랫폼 ‘바이오플루이드’ 개발
주사제 용액 기본대비 2배 고농축
병원 IV 대신 집에서 1분주사 가능

인벤티지랩이 항체의약품의 정맥주사(IV) 제형을 고농축해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새로운 플랫폼 ‘바이오플루이드(BioFluidic)’를 개발했다. 주사제 용액을 기존 개발된 기술보다 2배 이상 고농축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L6·L7면〉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지난 22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바이오테크의 기술들을 조명했다.

인벤티지랩은 자체 개발한 독자 플랫폼 ‘IVL-드러그플루이드(DrugFluidic)’를 활용해 바이오플루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드러그플루이드는 미세임자(마이크로스피어)를 만들어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도록 하는 약물전달시스템(DDS)이다. 인벤티지랩은이 플랫폼을 통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해왔다. 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항체 의약품에 적용하면, 주사제 입자의 부피를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지난 22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새로운 플랫폼 ‘바이오플루이드’를 공개했다. /손진영 기자 son@

크게 줄여 피하 주사가 가능한 고농축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환자가 IV를 맞을 경우,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거쳐 긴 시간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SC 제형의 경우, 환자가 집에서도 1분 안에 직접 주사를 할 수 있지만, 항암제와 같이 많은 양의 의약품을 주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김 대표는 “항체 의약품 입자를 고농축한 마이크로스피어를 만들어서 고농도, 저부피 제형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며 “우선적으로 항암제에 적용해, 병원에서 맞아야했던 주사제를 피하 주사 형태로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플루이드는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보다 훨씬 고농축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진다.

김 대표는 “이제까지 공개된 기술들 대비 2배 이상의 기술적 개선이 가능한 수준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인 플랫폼 고도화 연구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약물을 SC 제형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도 기존과 동등한 약물동태학(PK) 결과를 얻었기에 사업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분야인 만큼 바이오플루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오테크인 할로자임(Halozyne)이 스타트업, 일렉트로파이(Elektrofi)를 인수한 사례가 있었다.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딜이었다. 일렉트로파이는 고농도 의약품용 소량 주사로 투여 가능하게 하는 기술 ‘하이퍼콘(Hypercon™)’을 보유한 기업이다.

김 대표는 “인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고농축 SC 제형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다음주 보스턴에서 열리는 ‘약물전달체 파트너십 행사’(PODD)에 참여해 이 기술을 공개하고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은,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환율 더 살피야”

9월 하순 이후 환율·금리 변동성 ↑
수도권 주택가격·거래 다시 확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물가안정 흐름과 소비·수출 중심의 성장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주택시장·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효과와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인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관련기사 3면〉

금통위는 다음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 개선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망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안정 관점에서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율 변동성을 추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변동과 국고채금리의 최근 등락도 언급했다.

물가·성장 경로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각각 2.0%, 1.9%) 및 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원물가(각각 1.9%)가 8월 전망치와 부합하고 성장률(각각 0.9%, 1.6%) 또한 대체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외 여건도 금리동결 판단에 반영됐다. 한은은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 경로가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한

편, 불확실성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9월 하순 이후 환율·금리 변동성이 커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가 다시 확대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책 경로와 관련해 한은은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인하의 시기·속도는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 및 물가·금융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메트로 한줄뉴스



▲與, 국힘 10·15대책 비판에 “투기세력 등에 업고 부동산 쿠데타”
▲정동영 “남북, ‘평화적 두 국가’ 기초로 교류하면 사실상 통일”
/사진 뉴스

▲김재섭, 복기왕 ‘15억 서민아파트’에 “집 못사서 분통 터지는데 염장 지르나”
▲“전두환은 학살자냐” 문자 답 못한 대전시교육감…국감장 고성

▲외교부, 中 ‘서해구조물’ 잠수부·고속정 활동에 “문제 제기 할 것”
▲공군참모총장 “오산기지 압수수색, 정상적 절차였다”